



『한국인구학』 게재물의 구성과 변화, 1977~2004*

김 두 섭** · 박 효 준***

이 글은 1977-2004년의 기간 동안 한국인구학회의 공식학술지에 수록된 총 367편 게재물의 특성을 분석하여 그 동안 한국인구학의 발전과 연구경향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초창기의 학회지에는 연구논문 이외에도 심포지엄 발표논문, 권두언, 특별기고, 동정 등 다양한 유형의 글이 실렸지만 점차 연구논문이 주류를 이루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1985년부터는 연 2회로 발간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게재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게재된 논문들의 주제를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초기에는 인구정책, 출산, 사망, 인구이동 등의 전통적 연구 주제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점차 인구규모와 특징, 노동력, 혼인, 가족, 노인, 고령화, 지역연구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주제의 연구논문들이 많이 게재되고 있다. 또한 게재논문의 저자들을 분석한 결과, 초창기에는 연구기관과 통계 관련 국가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대학 소속의 연구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리고 활동적인 몇몇 연구자들의 기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각종 사회조사자료, 인구센서스와 문헌자료가 과반수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초기의 분석방법은 주로 정책분석, 빈도와 교차표분석, 평균차분석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회귀분석이,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로지스틱분석, 생존분석 등 정교한 기법들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핵심단어: 한국인구학, 게재논문, 연구경향, 연구주제, 연구자료, 분석방법, 연구자

I. 머리말

한국인구학회의 공식학술지는 1977년 『한국인구학회지』로 창간되었으며, 1996년 『한국인구학』으로 개명된 이후 2004년 말 27권 2호에 이르기까지 총 44회 발간되었다. 처음 출간 당시에는 일 년에 한 번씩 발간되었지만, 1985년의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78-BS0004).

**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한양대학교 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 전임연구원.

8권부터는 여름과 겨울 연 2회 발간하는 반년간 학술지로 성장하면서 게재물의 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1999년 상반기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로 3년간 일련의 평가과정을 거쳤으며, 2001년 하반기에 사회과학분야의 정식 등재지로 선정되어 인구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인구학』²⁾에는 다양한 유형의 글이 게재되어 왔다. 인구전문가들의 연구 논문 이외에도 인구센서스, 동태신고, 인구조사 등을 통해 집계된 통계자료가 수록되고, 인구 관련 저서나 단행본에 대한 서평이 실리기도 한다. 지난 1980년대 말까지는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의 요약문, 권두언, 특별기고, 동정과 같은 형태의 글이 게재되기도 하였다.

『한국인구학』이 1977년 창간된 이후 2004년에 이르기까지 총 367편의 글이 게재되었다. 이중 86.4%에 해당하는 317편이 연구논문이다. 이 글은 분석의 초점을 연구논문에 맞춘다. 즉 연구논문의 주제, 연구자의 특성, 연구자료, 분석방법 등을 시기별로 검토하여 그 동안 한국인구학의 발전과 연구경향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한국인구학』 이외에도 인구 관련 전문학술지가 일부 대학 연구소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기관에 의해서 출간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국인구학』이 한국인구학회의 공식학술지이기 때문에 지난 28년간 『한국인구학』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특성을 분석하여 한국인구학의 발전과 연구경향의 변화를 살펴보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II. 『한국인구학』 게재물의 구성과 변화

1. 전체 게재물의 유형과 분포

지난 28년간 『한국인구학』에는 다양한 유형의 글들이 실렸으며,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매우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 1>은 1977년의 창간호부터 2004년 12월 말에 출간된 27권 2호까지 『한국인구학』에 게재된 글들의 유형과 분포를 시기별로 보여준다.

『한국인구학』에는 1977년 이후 지금까지 총 367편의 글이 게재되었다. 게재물의 유형을 살펴보면, 연구논문이 317편(86.4%)으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

1) 그러나 1980년에는 『한국인구학회지』가 발간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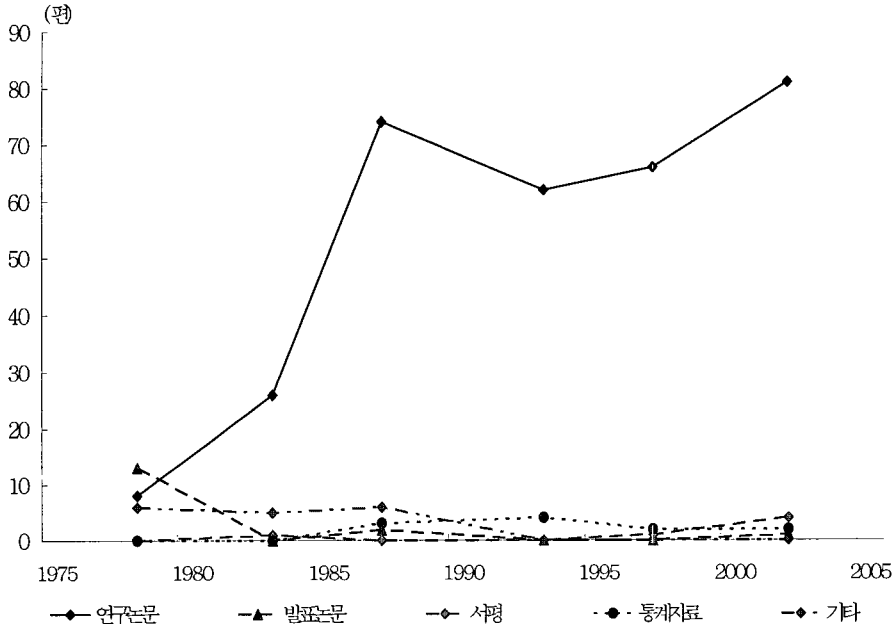
2) 이 글에서 『한국인구학』은 1977-1995년 기간의 『한국인구학회지』와 1996년 이후 발간된 『한국인구학』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표 1〉 게재물의 유형 및 시기별 구성분포

	1977-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1995-1999	2000-2004	전체
연구논문	8 (29.6)	26 (81.3)	74 (87.1)	62 (93.9)	66 (95.7)	81 (92.1)	317 (86.4)
발표논문/ 연구노트	13 (48.2)	.	2 (2.4)	.	.	1 (1.1)	16 (4.4)
서평	.	1 (3.1)	.	.	1 (1.5)	4 (4.6)	6 (1.6)
통계자료	.	.	3 (3.5)	4 (6.1)	2 (2.9)	2 (2.3)	11 (3.0)
기타 (권두언, 동정 등)	6 (22.2)	5 (15.6)	6 (7.1)	.	.	.	17 (4.6)
전체	27 (100.0)	32 (100.0)	85 (100.0)	66 (100.0)	69 (100.0)	88 (100.0)	367 (100.0)

하고 있다. 연구논문의 형식을 갖추지 않고 세미나 자료를 요약하여 게재한 발표논문이나 연구노트는 16편(4.4%)이었다. 또한 인구센서스, 동태신고, 인구조사 등의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한 통계자료가 11편(3.0%)이 실렸으며, 인구 관련 저서나 단행본에 대한 서평도 6편(1.6%)이 게재되었다. 이 외에도 권두언, 특별기고, 동정 등도 17편(4.6%)이 게재되었다.

<표 1>과 <그림 1>을 보면 게재물의 수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1977년 창간 이후 연 1회씩 발간되던 『한국인구학』이 1985년부터 연 2회 발간으로 증편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확대 증편은, 이 시기 인구전문가 규모의 증가와 아울러 연구논문 뿐만 아니라 서평, 통계자료, 특별기고 등 다양한 유형의 게재물에 대한 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확대 증편을 바탕으로 『한국인구학』 게재물의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가령, 1977~1979년의 기간에 게재물이 27편에 불과하였으나 1985~1989년의 기간에는 85편으로 증가하여, 이 시기에 저술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1990~2000년 기간에 조금 주춤했지만, 곧



〈그림 1〉 게재물의 유형별 변화추이

다시 회복되어 2000~2004년 기간에 88편이 게재되었다.

『한국인구학』은 지난 28년 동안 게재물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게재물의 유형별 분포에 있어서도 변화를 보인다. 우선 연구논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시기별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연구논문이 전체 게재물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초기의 『한국인구학』은 심포지엄이나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³⁾들을 공유하는 장(場)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으나, 점차 개인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게재하는 학술지로 변모되어 왔다.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발표논문은 1977-1979년에 13편(48.2%)이 게재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의 연구논문 8편(29.6%)보다도 더 많은 분량이다. 그러나 발표논문은 1977-1979년의 기간을 제외하면 거의 게재되지 않고 있다.

<표 1>을 보면, 비록 그 수는 많지 않지만, 최근에 이르러 서평이 꾸준히 게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평은 전체 기간 동안 총 6편(1.6%)이 실렸

3) 심포지엄이나 세미나에서 발표된 후 게재된 논문들은 연구논문에 비해 대부분 그 길이가 현저하게 짧고 내용에 있어서도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는데, 그 중 4편이 2000-2004년 기간에 게재되었다. 앞으로 새로운 간행물에 대한 정보 교류와 연구자간 대화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인구 관련 저서나 단행본에 대한 서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인구학』이 지닌 특징 중의 하나는 인구센서스, 동태신고나 주요 인구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한 통계자료가 게재된다는 것이다. 통계자료는 1985년 이후에 총 11편(3.0%)이 게재되었으며, 이들은 자료의 성격과 인구상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밖에 『한국인구학』에는 198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권두언, 특별기고, 동정 등이 총 17편이 게재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글들이 1990년 이후로 게재되지 않은 것은, 『한국인구학』의 성격이 초기의 정보교류의 목적을 넘어서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장으로 크게 변모했음을 의미한다.

2. 연구주제

이 글은 그동안 『한국인구학』에 게재된 연구논문 317편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연구논문은 1977-1979년 기간에 8편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2004년에는 81편이 게재되었다. <표 2>는 연구논문 317편의 주제별 구성분포의 변화추세를 보여준다.

연구주제는 *Population Index*의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인구규모 및 특징, 출산력, 사망력, 인구이동, 혼인과 가족, 노동력, 인구정책 및 일반이론, 국외 지역연구, 국내 지역연구, 인구자료 및 기타 등의 10개 분야로 구분하였다(Office of Population Research, 2005). 분류기준의 여러 분야에 걸쳐진 연구논문의 경우는 주 설명대상이나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연구주제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국가간 연구는 설명대상의 내용과 상관없이 국외 지역연구로, 한국의 지역연구는 국내 지역연구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인구학』에 가장 많이 게재된 연구논문의 주제는 인구규모 및 특징으로 총 317편 중 52편이 게재되어 16.4%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국외 지역연구로 50편(15.8%)이었고, 노동력은 48편(15.1%), 인구정책 및 일반이론은 35편(11.0%)을 차지하였다. 인구학의 전통적인 주제라 할 수 있는 출산력과 사망력은 각각 25편으로 7.9%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인구이동은 13편(4.1%)으로 구성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표 2>를 살펴보면, 『한국인구학』에 게재된 연구논문 주제의 시기별 변화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장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인

〈표 2〉 연구논문의 주제 및 시기별 구성분포

	1977-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1995-1999	2000-2004	전체
인구규모 및 특징	1 (12.5)	2 (7.7)	6 (8.1)	9 (14.5)	14 (21.2)	20 (24.7)	52 (16.4)
출산력	1 (12.5)	3 (11.5)	12 (16.2)	6 (9.7)	2 (3.0)	1 (1.2)	25 (7.9)
사망력	2 (25.0)	2 (7.7)	11 (14.9)	3 (4.8)	4 (6.1)	3 (3.7)	25 (7.9)
인구이동	.	1 (3.9)	4 (5.4)	3 (4.8)	2 (3.0)	3 (3.7)	13 (4.1)
혼인과 가족	.	4 (15.4)	3 (4.1)	7 (11.3)	7 (10.6)	8 (9.9)	29 (9.2)
노동력	.	3 (11.5)	13 (17.6)	5 (8.1)	6 (9.1)	21 (25.9)	48 (15.1)
인구정책 및 일반이론	3 (37.5)	6 (23.1)	11 (14.9)	9 (14.5)	2 (3.0)	4 (4.9)	35 (11.0)
국외 지역연구	1 (12.5)	2 (7.7)	9 (12.2)	13 (21.0)	16 (24.2)	9 (11.1)	50 (15.8)
국내 지역연구	.	2 (7.7)	1 (1.4)	2 (3.2)	7 (10.6)	10 (12.4)	22 (6.9)
인구자료 및 기타	.	1 (3.9)	4 (5.4)	5 (8.1)	6 (9.1)	2 (2.5)	18 (5.7)
전체	8 (100.0)	26 (100.0)	74 (100.0)	62 (100.0)	66 (100.0)	81 (100.0)	317 (100.0)

구규모 및 특징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영역에서는 주로 인구구조의 변동과 추계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작성되었다. 특히 1990년 이후에는 노인과 고령화 현상에 대한 연구논문들이 많이 게재되고 있다.

출산력, 사망력과 인구이동은 인구학의 전통적인 연구영역으로 관련 논문이 꾸준한 구성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1990년 이후에는 게재물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전문가들의 관심영역이 점차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1985~1989년의 기간에는 출산력, 사망력, 또는 인구이동이라는 단일 주제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던 반면, 1990년 이후에는 노동력이나 가족 등의 연구주제와 연계되어 작성된 논문이 많았다는 점도 지적

할 수 있다. 한편, 노동력, 혼인과 가족에 대한 논문은 그 수와 구성비율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노동력에 대한 연구논문의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2000~2004년도에는 전체 연구논문의 1/4에 해당하는 21편이 게재되었다. 혼인과 가족에 대한 논문도 1990년 이후 꾸준히 게재되고 있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 중의 하나는 인구정책 및 일반이론에 관한 논문이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많았다는 점이다. 이 시기에는 정부기관과 대학(보건대학원)의 인구와 보건 관련 전문가들과 국책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였으며, 당시의 『한국인구학』은 정책적인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인구정책에 대한 연구논문의 수와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또한 <표 2>는 국외 지역연구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근본적으로는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의 외국자료들이 가용해지고, 이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연구영역은 1977~1979년 기간에 단 1편만이 게재되었는데, 1995-1999년에는 해당 기간 연구논문의 1/4에 해당하는 16편이 게재되었다. 비록 2000-2004년 기간에는 9편으로 그 비중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국외 지역연구는 중요한 연구영역의 하나로 이미 자리 잡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지역연구 역시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이 분야의 연구는 1977~1979년 기간 동안 단 한편도 게재되지 않았는데, 점차 그 수가 증가하여 1995년 이후에 총 17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국내 지역연구의 구체적인 성격도 비교적 다양하여 출산력, 사망력, 인구이동, 노동력, 지역간 불평등 등의 주제들이 단독으로 분석되거나 또는 서로 결합되어 도시와 농촌, 혹은 특정 지역의 맥락에서 분석되어 왔다.

<표 2>에 제시된 인구자료 및 기타의 범주에는 인구센서스나 동태통계 등의 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제안한 논문이나 방법론적 제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구학적 연구가 이러한 자료와 연구방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범주의 연구논문들을 통해 제시되는 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제안들은 모든 인구전문가들에게 매우 유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3. 연구자의 소속기관

『한국인구학』에 연구논문을 게재하는 사람들의 소속을 검토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우선, 『한국인구학』이 인구학 분야를 대표하는 학술지로

〈표 3〉 연구자의 소속 및 시기별 구성분포

	1977-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1995-1999	2000-2004	전체
제1 저자							
서울 소재 대학	5 (62.5)	6 (23.1)	28 (37.8)	13 (21.0)	20 (30.3)	35 (43.2)	107 (33.8)
지방 소재 대학	.	4 (15.4)	11 (14.9)	14 (22.6)	20 (30.3)	23 (28.4)	72 (22.7)
외국 대학	3 (37.5)	2 (7.7)	2 (2.7)	8 (12.9)	.	2 (2.5)	17 (5.4)
연구기관	.	14 (53.9)	21 (28.4)	15 (24.2)	20 (30.3)	17 (21.0)	87 (27.4)
국가기관	.	.	8 (10.8)	7 (11.3)	5 (7.6)	4 (4.9)	24 (7.6)
외국 연구기관	.	.	4 (5.4)	5 (8.1)	1 (1.5)	.	10 (3.2)
전체	8 (100.0)	26 (100.0)	74 (100.0)	62 (100.0)	66 (100.0)	81 (100.0)	317 (100.0)
전체 저자							
서울 소재 대학	10 (71.4)	8 (19.1)	31 (32.3)	24 (24.5)	29 (31.5)	47 (42.7)	149 (33.0)
지방 소재 대학	.	6 (14.3)	17 (17.7)	16 (16.3)	26 (28.3)	26 (23.6)	91 (20.1)
외국 대학	3 (21.4)	4 (9.5)	2 (2.1)	10 (10.2)	3 (3.3)	8 (7.3)	30 (6.6)
연구기관	1 (7.1)	24 (57.1)	32 (33.3)	27 (27.6)	26 (28.3)	24 (21.8)	134 (29.7)
국가기관	.	.	10 (10.4)	11 (11.2)	7 (7.6)	5 (4.6)	33 (7.3)
외국 연구기관	.	.	4 (4.2)	10 (10.2)	1 (1.1)	.	15 (3.3)
전체	14 (100.0)	42 (100.0)	96 (100.0)	98 (100.0)	92 (100.0)	110 (100.0)	452 (100.0)

서 다양한 소속의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학문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인구학』에 논문을 게재하는 연구자들 소속의 변화추이가 한국인구학계의 연구 중심축의 변화양상과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에는 『한국인구학』에 연구논문을 게재한 저자들의 당시 소속이 시기별로 집계되어 있다. 이 표는 제1 저자 317명을 대상으로 정리한 부분과 전체 저자 452명을 대상으로 정리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분석대상인 317편의 논문 중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이 100편에 이르고, 공동집필 논문은 제1 저자와 공동집필자의 기여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우선 제1 저자를 위주로 살펴보면, 서울 소재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들이 107명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하였고, 연구기관에 소속된 저자들이 87명으로 27.4%를 차지하였다.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 소재 대학, 그리고 외국 대학을 합치면 총 196명으로 61.8%에 달하며, 국내외 연구기관과 국가기관에 소속된 저자들이 총 121명으로 38.2%를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표 3>에서는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구성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서울과 지방 소재 대학에 모두 적용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자 소속별 구성분포와 변화추이는 전체 저자들을 대상으로 살펴보아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전체 저자 중 국내외 대학 소속 연구자들이 총 270명으로 59.7%, 그리고 국내외 연구기관과 국가기관의 연구자들이 총 182명으로 40.3%로 집계되었다. 대학 소속 저자들의 구성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도 마찬가지로 관찰된다.

『한국인구학』에 논문을 게재하는 연구자들의 소속을 살펴보면, 대학, 연구기관과 국가기관이 세 축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구학』은 사회과학 분야의 다른 학술지에 비해서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80-1984년의 기간에는 연구기관 소속의 저자가 대학 소속의 저자보다도 현저하게 많았다. 그리고 경제기획원,⁴⁾ 통계청, 보건사회(복지)부 등 국가기관에 소속된 인구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들은 주로 자료와 인구 관련 정책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였다. 국가기관 소속 연구자의 구성비율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전반에 가장 높았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다소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4) 통계 관련 주무부서인 조사통계국은 경제기획원 소속이었으며, 1990년에 통계청으로 승격, 개편되었다.

또한 외국 대학과 외국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들도 꾸준히 『한국인구학』에 연구논문을 게재하여 왔다. 이들은 과거에는 외국인 학자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 이르러 한국인 유학생과 박사학위 취득자의 논문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주로 국가간 비교연구나 해당 국가의 정책에 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룬다. 이러한 연구들은 1990~1994년 기간에 가장 많이 게재되었다.

4. 연구자의 신분

무릇 우수한 학술지라면 원로 및 중진 연구자들의 권위 있는 연구결과와 함께, 새로운 방법론과 접근방법을 적용한 신진 연구자들의 논문들이 조화를 이루며 게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인구학』에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들의 신분을 시기별로 정리한 결과가 <표 4>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총 317명의 제1 저자 중에서 55.8%에 해당하는 177명이 교수의 신분으로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연구원은 99명(31.2%)이었다. 그러나 『한국인구학』의 초창기에는 연구원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예를 들어, 1980~1984년 기간의 전체 저자는 연구원과 교수가 각각 23명과 18명이었다. 시기별로는 젊은 대학교수들의 왕성한 연구활동에 힘입어 교수의 구성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연구원의 점유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00~2004년 기간에는 교수의 구성비율이 다른 기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고, 반대로 연구원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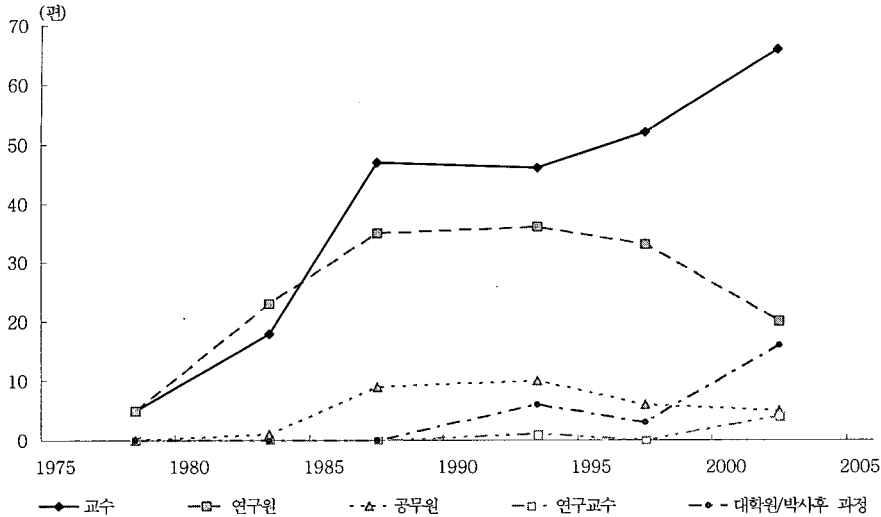
『한국인구학』에 연구논문을 게재한 공무원 인구전문가들은 총 24명(7.6%)이다. 공무원들은 1985~1989년과 1990~1994년 기간에 각각 7편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당시의 인구정책이나 통계자료에 대한 논문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아직은 연구교수와 대학원/박사후 과정 연구자들의 논문은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다. 각각 4명(1.3%)과 8명(2.5%)으로, 총 317명 중에서 3.8%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체 저자로 집계하여도 30명으로 6.6%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인구학』이 아직까지는 기성 전문가들 위주이고, 신진 연구자들의 참여가 미약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참고로, 한국사회학회의 공식학술지인 『한국사회학』에 논문을 게재한 시간강사 등 신진 연구자들의 구성비율은 14.7%이었다(김두섭·은기수, 2002).

이상 살펴본 경향은 분석의 대상을 제1 저자 뿐 아니라 전체 저자로 확대했을

〈표 4〉 연구자의 신분 및 시기별 구성분포

	1977-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1995-1999	2000-2004	전체
제1 저자							
교수	5 (62.5)	12 (46.2)	37 (50.0)	33 (53.2)	36 (54.6)	54 (66.7)	177 (55.8)
연구원	3 (37.5)	13 (50.0)	25 (33.8)	19 (30.7)	24 (36.4)	15 (18.5)	99 (31.2)
공무원	.	1 (3.9)	7 (9.5)	7 (11.3)	5 (7.6)	4 (4.9)	24 (7.6)
연구교수	.	.	.	1 (1.6)	.	3 (3.7)	4 (1.3)
대학원/ 박사후 과정	.	.	.	2 (3.2)	1 (1.5)	5 (6.2)	8 (2.5)
미상	.	.	5 (6.8)	.	.	.	5 (1.6)
전체	8 (100.0)	26 (100.0)	74 (100.0)	62 (100.0)	66 (100.0)	81 (100.0)	317 (100.0)
전체 저자							
교수	5 (35.7)	18 (42.9)	47 (49.0)	46 (46.5)	52 (55.3)	66 (59.5)	234 (51.3)
연구원	5 (35.7)	23 (54.8)	35 (36.5)	36 (36.4)	33 (35.1)	20 (18.0)	152 (33.3)
공무원	.	1 (2.4)	9 (9.4)	10 (10.1)	6 (6.4)	5 (4.5)	31 (6.8)
연구교수	.	.	.	1 (1.0)	.	4 (3.6)	5 (1.1)
대학원/ 박사후 과정	.	.	.	6 (6.1)	3 (3.2)	16 (14.4)	25 (5.5)
미상	4 (28.6)	.	5 (5.2)	.	.	.	9 (2.0)
전체	14 (100.0)	42 (100.0)	96 (100.0)	99 (100.0)	94 (100.0)	111 (100.0)	456 (100.0)



<그림 2> 연구자 신분구성의 변화추이

경우에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학원/박사후 과정 연구자들의 구성비율이 다소 증가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대학원/박사후 과정에 있는 연구자들은 자신의 독립적인 연구결과보다는 공동 저자로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대학원/박사후 과정의 제1 저자는 전 기간 동안 8명(2.5%)에 불과했던 반면, 전체 저자는 16명(5.5%)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는 『한국인구학』에 연구논문을 게재한 전체 저자들의 신분구성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교수의 점유율은 1977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비록 절대규모는 작지만, 대학원 학생과 박사 후 과정 연구자들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연구원과 공무원의 연구논문은 그 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낸다.

5. 주요 저자

『한국인구학』에 게재된 총 317편의 연구논문 중에서 단독저술은 217편으로 68.5%이고, 2명이 공동집필한 논문은 72편, 3명 이상의 공동집필논문은 28편이다. 『한국인구학』이 지니는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매우 왕성하게 활동하는 몇몇 연구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총 317편의 연구논문의 제1

〈표 5〉 연구시기별 주요 저자

	1977-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1995-1999	2000-2004	전체
제1 저자							
저자 1	3	5	8
저자 2	.	.	3	2	2	1	8
저자 3	.	.	.	1	3	3	7
저자 4	2	5	7
저자 5	2	2	1	1	1	.	7
저자 6	.	1	2	3	.	.	6
저자 7	.	.	.	2	3	1	6
저자 8	.	1	1	3	1	.	6
저자 9	.	1	1	1	.	3	6
저자 10	.	.	1	.	2	2	5
저자 11	.	1	3	1	.	.	5
저자 12	.	.	1	1	3	.	5
저자 13	.	1	4	.	.	.	5
전체	2	7	17	15	20	20	81
전체 저자							
저자 6	.	1	5	4	.	.	10
저자 14	.	.	2	5	1	1	9
저자 1	3	6	9
저자 5	2	2	1	2	2	.	9
저자 3	.	.	.	1	4	3	8
저자 13	1	2	5	.	.	.	8
저자 2	.	.	3	2	2	1	8
저자 7	.	.	1	2	3	1	7
저자 4	2	5	7
저자 15	.	3	3	1	.	.	7
저자 10	.	.	1	.	2	3	6
저자 16	.	.	2	2	1	1	6
저자 11	.	1	3	2	.	.	6
저자 8	.	1	1	3	1	.	6
저자 9	.	1	1	1	.	3	6
전체	3	11	28	25	21	24	112

〈표 6〉 연구주제별 주요 저자

	인구규모 및 특징	출산력	사망력	인구 이동	혼인과 가족	노동력	인구정책 및 일반이론	국외지역 연구	국내지 역연구	인구자료 및 기타	전체
제1 저자											
저자 1	2	5	1	.	8
저자 2	2	2	.	.	.	2	.	1	1	.	8
저자 3	1	.	3	.	1	.	.	1	1	.	7
저자 4	4	2	.	.	1	.	7
저자 5	1	.	3	.	.	.	2	1	.	.	7
저자 6	1	.	5	.	.	.	6
저자 7	1	1	1	2	1	6
저자 8	6	6
저자 9	6	6
저자 10	1	1	1	2	.	5
저자 11	.	1	.	.	1	.	3	.	.	.	5
저자 12	.	1	1	.	1	.	.	.	1	1	5
저자 13	1	3	1	.	.	.	5
전체	9	9	8	.	8	16	11	9	9	2	81
전체 저자											
저자 6	.	1	.	.	2	2	5	.	.	.	10
저자 14	.	.	2	.	.	.	1	.	.	6	9
저자 1	3	5	1	.	9
저자 5	2	.	4	.	.	.	2	1	.	.	9
저자 3	1	.	4	.	1	.	.	1	1	.	8
저자 13	1	3	.	.	1	.	1	2	.	.	8
저자 2	2	2	.	.	.	2	.	1	1	.	8
저자 7	1	1	2	2	1	7
저자 4	4	2	.	.	1	.	7
저자 15	1	1	.	2	.	.	2	1	.	.	7
저자 10	1	1	.	.	1	.	.	1	2	.	6
저자 16	1	2	1	.	.	1	.	.	1	.	6
저자 11	.	1	.	.	1	.	4	.	.	.	6
저자 8	6	6
저자 9	6	6
전체	13	12	13	2	10	19	15	12	9	7	112

저자들을 집계한 결과, 5편 이상을 게재한 연구자가 13명이었고, 이들이 작성한 연구논문은 81편이었다. 즉, 4.1%(13/317×100)에 해당하는 저자가 전체의 25.6%(81/317×100)에 해당하는 논문을 게재한 셈이다. 이렇게 높은 집중도는 제1 저자 뿐 아니라 전체 저자를 기준으로 집계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즉, 전체 저자의 4.7%가 전체 논문의 35.3%를 게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5>에는 5편 이상의 연구논문을 게재한 제1 저자 13명과, 전체 저자로 확장시켰을 때 6편 이상의 연구논문을 게재한 15명의 연구자들이 시기별로 정리되어 있다. 우선, 제1 저자와 전체 저자를 기준으로 한 집계결과가 대체로 동일한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의 『한국인구학』은 보건 분야에 접목된 인구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리고 보건대학원과 국책연구소에 소속된 몇몇 연구자들의 활발한 연구활동이 초창기 『한국인구학』의 주된 동력을 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진입하면서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인구연구자들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들의 연구활동 또한 매우 왕성하게 이루어졌다. 보건 분야의 연구자들과 국책연구소 연구자들의 논문점유율이 1990년 이후 다소 주춤해진 것은 우리나라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관심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 출산력이 선진국의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정부의 인구정책은 유명무실해졌고, 이에 수반하여 인구연구에 대한 관심도 매우 약해졌다.

<표 6>은 그동안 『한국인구학』에 많은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들이 주로 어떤 연구주제들을 다루어 왔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자들의 선정기준은 <표 5>와 동일하다. 왕성한 활동의 연구자들이 비교적 고르게 연구대상으로 삼은 주제는 인구규모 및 특징, 출산력, 국내 지역연구 등 이었다. 또한 사망력, 혼인과 가족, 노동력, 인구정책 및 일반이론, 국외 지역연구, 인구자료 및 기타의 연구영역은 전체 연구논문에 대한 이들 특정 연구자들의 기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인구자료 및 기타는 전체 저자 기준으로 7편의 연구논문이 게재되었는데, 단 한 명의 연구자가 이중 6편을 집필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력과 국외 지역연구 등의 영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한 두 명의 저자가 한 연구영역에서 5-6편의 연구논문을 게재하여, 해당 연구영역의 발전이 소수 연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집중도는 저자들의 전공이나 소속기관을 살펴보아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가령 사망력 연구논문들은 대부분 국책연구원과 보건 분야의 연구자에 의해서 작성되었고, 노동력의 경우는 경제학 배경의 연구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구정책과 일반이론 영역은 국책연구원 소속의 두 연구자가 9

편의 연구논문을 작성하였고, 국외 지역연구는 대학 소속의 한 연구자가 무려 5편이나 작성하였다. 이러한 집중현상은 해당 연구자들의 왕성한 활동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인구학계의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6. 연구자료

한국 인구학의 발전은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 과거에는 자료가 가용하지 않거나 결함으로 인하여 다양한 인구학적 관심들이 구체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분석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자료의 가용성과 신뢰도가 높아지고 보다 정교한 분석기법들이 개발되면서 한국 인구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7>에는 『한국인구학』에 게재된 논문들에 사용된 연구자료들이 집계되어 있다.

<표 7>을 보면, 조사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조사자료를 활용한 연구논문은 전체 317편 중 69편으로 21.8%에 해당한다. 그리고 조사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예를 들어 1985~1989년에는 조사자료를 이용한 연구논문이 9편이었으나, 2000~2004년 기간에는 24건으로 증가하였다. 앞으로 다양한 정책적, 학문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사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이러한 조사자료를 활용한 연구논문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센서스 자료는 60편의 논문에서 활용되어 점유율이 18.9%에 이른다. 그리고 인구센서스 자료의 활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한국인구학』의 초창기인 1977~1979년, 그리고 1980~1984년 기간에는 단 2편의 논문에서만 활용되었으나 점차 그 활용도가 증가하여 1985년 이후에는 매 기간 10편 이상의 논문에서 분석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인구센서스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이유로는 자료의 질이 개선되고, 원자료(raw data)에 대한 접근이 보다 수월해진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인구동태통계 자료도 1990년대 이후 질적으로 향상되었다는 평가에 힘입어 높은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다. 인구동태자료를 활용한 논문은 23편(7.3%)이 게재되어 인구센서스와 함께 대표적인 통계자료로서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시기별로는 1985~1989년에 7편이 활용되었고, 1990년 이후로는 4-5편씩 꾸준히 활용되어 왔다.

<표 7>에서 문헌자료를 분석한 논문은 46편으로 총 317편 논문의 14.6%를

<표 7> 연구자료의 시기별 구성분포

	1977-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1995-1999	2000-2004	전체
문헌자료	. (0.0)	5 (19.2)	16 (21.6)	9 (14.5)	6 (9.1)	10 (12.4)	46 (14.5)
정책자료	1 (12.5)	5 (19.2)	11 (14.9)	6 (9.7)	3 (4.6)	3 (3.7)	29 (9.2)
인구센서스	2 (25.0)	2 (7.7)	16 (21.6)	12 (19.4)	13 (19.7)	15 (18.5)	60 (18.9)
인구동태통계	. (0.0)	2 (7.7)	7 (9.5)	5 (8.1)	4 (6.1)	5 (6.2)	23 (7.3)
KNFS(WFS)	1 (12.5)	3 (11.5)	4 (5.4)	10 (16.1)	3 (4.6)	5 (6.2)	26 (8.2)
전국인구이동조사	. (0.0)	. (0.0)	1 (1.4)	. (0.0)	3 (4.6)	. (0.0)	4 (1.3)
경제활동인구조사	1 (12.5)	. (0.0)	1 (1.4)	. (0.0)	4 (6.1)	8 (9.9)	14 (4.4)
기타 국가통계	. (0.0)	1 (3.9)	5 (6.8)	1 (1.6)	5 (7.6)	9 (11.1)	21 (6.6)
조사자료	2 (25.0)	8 (30.8)	9 (12.2)	7 (11.3)	19 (28.8)	24 (29.6)	69 (21.8)
생명표	. (0.0)	. (0.0)	2 (2.7)	1 (1.6)	1 (1.5)	. (0.0)	4 (1.3)
장래인구추계	1 (12.5)	. (0.0)	. (0.0)	2 (3.2)	. (0.0)	. (0.0)	3 (1.0)
외국자료	. (0.0)	. (0.0)	2 (2.7)	9 (14.5)	5 (7.6)	2 (2.5)	18 (5.7)
전체	8 (100.0)	26 (100.0)	74 (100.0)	62 (100.0)	66 (100.0)	81 (100.0)	317 (100.0)

차지하였다. 문헌분석에는 주요한 인구학 개념에 대한 이론적 연구들과, 과거의 자료들을 인용한 연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문헌연구의 비중이 높은 것은 연구자에 따라서는 분석자료와 연구방법을 확보하기가 그리 수월하지 않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시기별로는 1980년대에 문헌연구의 비중이 높았으며, 그 후 점차 점유율이 줄어들다가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인구학』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정책자료를 분석한 논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인구학』에는 그동안 총 29편(9.2%)의 정

책분석 논문이 게재되었다. 시기별로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전반에 많은 수의 정책분석 논문이 게재되었고, 1995년 이후에는 기간별로 3편씩 게재되었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앞으로 인구정책에 관한 논문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출산력조사(KNFS)는 1974년에 시행된 세계출산력조사(WFS)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를 포함한다. 이 자료를 활용한 논문은 26편(8.2%)이다. 인구센서스와 인구동태통계를 제외하고, 단일 자료로는 가장 높은 활용도를 보인다. 이 자료는 출산력에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출산력의 인과구조나 차별출산력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다. 시기별로는 1990~1994년 기간에 가장 많은 1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다른 기간에도 3-5편 정도씩 꾸준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인구이동특별조사는 1983년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통계청이 시행하였다. 이 자료에는 인구이동의 이유 등 다양한 조사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자료를 활용한 논문은 4편에 불과하여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특별조사 자료는 단일 연구자료로 활용되기보다는 인구센서스나 인구동태통계 등의 다른 연구자료들과 같이 부분적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최근에 이르러 경제활동인구나 노동력을 연구 주제로 삼는 논문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한 논문은 14편 게재되었으며, 점유율이 4.4%를 차지하였다. 시기별 편중이 심하여 이중 4편의 논문이 1995~1999년의 기간에, 그리고 8편이 2000~2004년 기간에 게재되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생명표 자료를 활용하는 분석방법은 흔히 인구학의 고유영역으로 간주되며, 사망률 뿐만 아니라 노동력 분석에도 널리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8년간 『한국인구학』에 게재된 연구논문 중 4편만이 생명표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관련된 논문도 3편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생명표와 장래인구추계 자료는 단일 연구자료로 활용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⁵⁾

<표 7>을 살펴보면, 최근에 이르러 인구전문가들의 관심영역이 확장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국가통계자료가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국의 원자료를 활용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자료를 분석한 논문들은 시기별 집중성향이 강하여 1990

5) 그러나 생명표를 직접 작성한 연구논문은 많았으며, 23편으로 집계되었다(<표 8>).

년대에 14편이 게재되었다.

7. 분석방법

인구학은 논리연역적인 가설 도출과 경험적인 자료를 활용한 검증, 그리고 정책적 함의에 대한 논의가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학문분야이다. 『한국인구학』에 게재된 논문들의 분석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특징들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표 8>과 <그림 3>은 그동안 『한국인구학』에 활용되었던 분석방법들을 11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8>에서 인구학 이론에 대한 분석적 논의가 중심을 이루는 연구논문은 37편으로 1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자료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이나 자료 구축, 방법론에 대한 연구논문은 모두 15편으로, 전체 317편의 4.7%에 해당된다. 정책분석 논문은 총 31편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논문들은 주로 국가기관과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특히 1985-1994년의 기간에 집중적으로 게재되었다.

인구학의 주된 관심의 하나는 출생, 사망, 인구이동 등의 인구현상이 집단에 따라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가를 빈도와 평균값 비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험적 자료를 분석하는 통계기법 중에서는 교차표분석과 χ^2 검증이 가장 널리 활용되었다. 교차표분석과 χ^2 검증이 시도된 논문은 85편으로 전체 317편의 26.8%에 해당된다. 예상과는 달리, 교차표분석과 χ^2 검증의 구성 비율은 시기에 따라서도 커다란 편차를 보이지 않으며 최근에도 꾸준히 활용되고 있다. 또한 t 검증, ANOVA, MCA 등을 통해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비교한 논문도 14편으로 집계되었다.

회귀분석은 지나치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인과구조를 파악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광범하게 활용되는 통계기법이다. 또한 정책효과를 측정하고 독립변수들이 지니는 상대적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평가하는데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회귀분석을 주요 분석방법으로 선택한 논문은 46편으로 전체의 14.5%를 차지하였다. 이 분석방법은 시기에 관계없이 고른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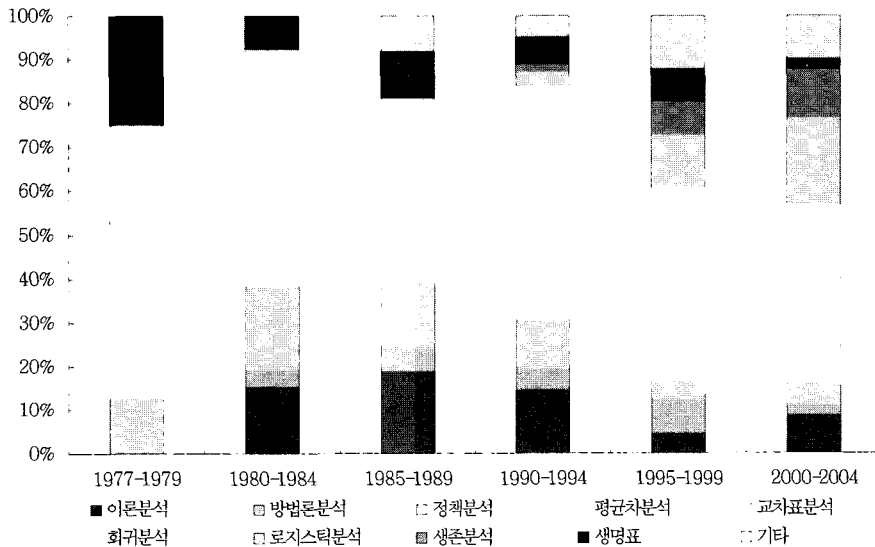
로지스틱분석과 생존분석은 회귀분석의 응용기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점차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표 8>과 <그림 3>에서 독립적인 범주로 분류하였다. 범주형 자료분석에 유용한 로지스틱분석을 시도한 논문들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분석기법은 1990년대에 진입한 후 도입되었으나

<표 8> 분석방법의 시기별 구성분포

	1977- 1979	1980- 1984	1985- 1989	1990- 1994	1995- 1999	2000- 2004	전체
이론분석	. (0.0)	4 (15.4)	14 (18.9)	9 (14.5)	3 (4.6)	7 (8.6)	37 (11.7)
자료구축 및 방법론분석	. (0.0)	1 (3.9)	4 (5.4)	3 (4.8)	5 (7.6)	2 (2.5)	15 (4.7)
정책분석	1 (12.5)	5 (19.2)	11 (14.9)	7 (11.3)	3 (4.6)	4 (4.9)	31 (9.8)
평균차분석 (<i>t</i> 검증, ANOVA, MCA)	. (0.0)	2 (7.7)	1 (1.4)	2 (3.2)	5 (7.6)	4 (4.9)	14 (4.4)
교차표분석 (χ^2 검증)	4 (50.0)	7 (26.9)	18 (24.3)	24 (38.7)	15 (22.7)	17 (21.0)	85 (26.8)
회귀분석	1 (12.5)	5 (19.2)	12 (16.2)	7 (11.3)	9 (13.6)	12 (14.8)	46 (14.5)
로지스틱분석	. (0.0)	. (0.0)	. (0.0)	2 (3.2)	8 (12.1)	16 (19.8)	26 (8.2)
생존분석	. (0.0)	. (0.0)	. (0.0)	1 (1.6)	5 (7.6)	9 (11.1)	15 (4.7)
생명표	2 (25.0)	2 (7.7)	8 (10.8)	4 (6.5)	5 (7.6)	2 (2.5)	23 (7.3)
기타	. (0.0)	. (0.0)	6 (8.1)	3 (4.8)	8 (12.1)	8 (9.9)	25 (7.9)
전체	8 (100.0)	26 (100.0)	74 (100.0)	62 (100.0)	66 (100.0)	81 (100.0)	317 (100.0)

2000-2004년 기간에는 18편의 논문에서 활용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인구분석에 동원되는 많은 변수들이 범주형 자료이고, 이 분석기법이 교차표분석이나 χ^2 검증에 비해 보다 정교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로지스틱분석은 앞으로 더욱 광범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8>과 <그림 3>을 보면, 1990년대 이후 한국에 소개된 생존분석도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존분석을 시도한 논문은 15편으로 집계되어 점유율이 4.7%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00-2004년 기간에는 9편의 논문에서 생존분석이 이루어졌다.

생명표 분석기법을 활용한 논문은 『한국인구학』이 창간된 이래 꾸준히 게재되어 왔다. 비록 2000-2004년 기간에 그 구성비율이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전체



〈그림 3〉 분석방법 구성분포의 변화추이

기간에 23편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생명표가 사망력이나 노동력 등의 한정된 연구영역에서 사용되는 독립적인 분석방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구성비율은 매우 높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동안 『한국인구학』 게재논문에서는 이상 언급된 분석방법 이외에도 지니계수, 심층면접, GIS 등 총 25가지의 분석기법들이 활용되었다. 또한 <그림 3>을 보면, 『한국인구학』에 게재된 초기의 연구논문들은 교차표분석 등 몇 가지 대표적인 분석방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다양한 분석방법이 활용되고 있고, 각 분석방법의 구성비율이 비교적 평준화되어가는 추세를 보인다.

Ⅲ. 『한국인구학』을 위한 제언

이 글은 한국인구학회의 공식학술지에 수록된 게재물의 특성을 분석하여 지난 28년 동안 한국인구학의 발전과 연구경향의 변화를 살펴보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저자의 특성, 연구주제, 연구자료와 분석방법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핵심

단어(key word)와 참고문헌을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시기별 주요 핵심단어, 주요 연구논문의 시기별 피인용 횟수, 저자와 핵심단어의 관계, 특정 핵심단어와 연구방법 등을 검토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한국인구학』에 핵심단어가 수록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에 발간된 21권부터이다. 또한 『한국인구학』의 역사가 28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기별, 주제별로 뚜렷하게 부각되는 특징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았다. 게다가 『한국인구학』의 편집요강이나 원칙 등이 자주 변하였기 때문에 정교한 수준의 논의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인용 및 피인용 편수에 대한 분석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참고문헌의 정확한 정리가 필수적이다 (Jacobs, 2005). 하지만 대부분의 논문 집필자들이 참고문헌의 정리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그리고 현재 『한국인구학』의 발행 체제와 여건 하에서는 참고문헌의 정확한 편집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한국인구학』에 게재된 몇 편의 논문을 검토해보면, 이러한 상황이 다소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표 9>는 최근 『한국인구학』에 게재된 연구논문에서 참고문헌과 관련된 오류를 정리한 것이다. 최근에 발간된 『한국인구학』에서 연구논문 10편을 선택하여 본문과 참고문헌을 대조하였으며, 이 중 오류가 있는 것들을 3가지로 분류하였다. 우선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으나 참고문헌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오류는 대부분 원고작성 후 참고문헌을 소홀히 정리하였기 때문에 발생한다. 참고문헌의 누락이 가장 많은 경우는 4건으로 드러났다. 참고문헌의 두 번째 오류형태는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으나 참고문헌에는 언급된 경우이다. 이러한 오류는 원고의 수정과정에서 삭제된 본문 중의 참고문헌을 최종적으로 편집하지 않았거나, 연구자의 서지목록(bibliography)을 그대로 수록하는 경우에 주로 발견된다. <표 9>를 보면, 이러한 오류가 상당히 빈번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오류형태는 사소한 오기이다. 이미 본문과 참고문헌에 언급된 문헌임에도, 사소한 실수로 본문이나 참고문헌에 연도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문헌과 본문의 불일치와 오기는 물론 논문 집필자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나, 최종 편집과 교정과정에서 걸러져야 할 성질의 것들이다.

마지막으로, 문헌검토를 부실하게 하거나 참고자료나 출처를 기재하지 않는 오류를 지적할 수 있다. 대부분의 논문들이 집필자 자신의 논문 위주로 문헌검토를 하는 경향이 『한국인구학』에서도 발견된다. 축적된 연구결과에 대한 부실한 검토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인구학처럼 자료를 많이 다루는 분야의 연구논문에서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는 것 역시 시급히

〈표 9〉 최근 『한국인구학』 연구논문의 참고문헌 정리 현황

	본문에는 있으나 참고문헌에는 없는 문헌자료	참고문헌에는 있으나 본문에 없는 문헌자료	연도 오기
논문 1	2	1	1
논문 2	1	17	2
논문 3	1	6	.
논문 4	.	4	3
논문 5	.	10	.
논문 6	.	.	2
논문 7	2	.	1
논문 8	4	1	1
논문 9	1	.	1
논문 10	1	1	.

고쳐져야 한다. 각종 자료나 표를 집필자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혹은 다른 논문이나 단행본에서 인용한 것인지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IV. 맺는 말

이 글은 『한국인구학』이 1977년 창간된 이후 2004년의 27권에 이르기까지 28년 동안 수록된 총 367편 게재물의 특성을 분석하여 한국인구학의 발전과 연구경향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초창기의 학회지에는 연구논문 이외에도 심포지엄 발표논문, 권두언, 특별기고, 동정 등 다양한 유형의 글이 실렸지만 점차 연구논문이 주류를 이루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1985년부터는 연 2회로 발간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게재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글의 분석은 317편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저자의 특성, 연구주제, 연구자료와 분석방법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국인구학』은 양적인 발전과 더불어 구체적인 성격도 변화해 왔다. 게재된 논문들의 주제를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초기에는 인구학의 전통적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출산력, 사망력, 인구이동과 함께 정책연구가 대단히 활발하였고,

점차 노동력, 혼인과 가족, 노인, 고령화, 지역연구 등 복합적인 분야들의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학의 관심과 연구영역이 점차 확장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게재논문의 저자들을 분석한 결과, 대학교수와 아울러 연구기관과 통계 관련 국가기관 소속의 연구자들이 비교적 고르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대학교수의 연구논문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리고 『한국인구학』의 발전과정에서 활동적인 몇몇 연구자들의 기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망력, 노동력, 국내 지역연구 등의 연구영역에서 특히 그러하였다. 앞으로 논문 투고자의 범위를 좀더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기성 연구자뿐만 아니라 신진 연구자들도 좀더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국인구학』에 게재된 논문들에서 사용된 연구자료와 분석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각종 사회조사자료, 인구센서스와 문헌자료를 사용한 연구논문이 과반수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초기의 통계기법은 비교적 단순한 빈도와 교차표분석(χ^2 검증), 평균차분석(t 검증, ANOVA, MCA)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회귀분석이,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로지스틱분석, 생존분석 등 정교한 기법들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연구논문에 수록된 핵심단어와 참고문헌을 정리하여 시기별 주요 핵심단어, 주요 연구논문의 시기별 피인용 횟수, 저자와 핵심단어의 관계, 특정 핵심단어와 연구방법 등을 검토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한국인구학』 편집 체계의 보완과 논문 집필자들의 참고문헌 및 자료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두섭·은기수 (2002), “『한국사회학』 게재물의 구성과 변화,” 『한국사회학』 36(4): 215-234.
- Jacobs, Jerry A. (2005), “ASR's Greatest Hi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0(1): 1-3.
- Office of Population Research (2005), “Population Index Subject Headings,”

Office of Population Research,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http://popindex.princeton.edu/search/help/headings.html>.